‘작황 양호’ 과일·채소값 하락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5월 사과 전년비 18.3%↓…저장·출하량 증가 영향
배추·대파·당근 등 양념·엽근채소류 하락세…이상기후 피해도 줄어

이번 달 사과와 배 등 과일류부터 배추와 대파 등 양념·엽근채소류까지 농산물 도매가가 대부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2023~2024년 2년 동안 생육기 때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올해는 비교적 이상기후 피해가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발표한 ‘농업관측정보 5월호’에 따르면 5월 중 사과(후지·상품) 도매가는 10㎏ 당 6만 5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월(7만 9592원) 대비 18.3%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사과 도매가 역시 10㎏ 당 6만 4877원으로 전년보다 18.4%나 낮게 형성됐다. 지난달 사과 반입량은 전년과 비교해 35.7% 많았으며, 5월과 6월에도 사과 출하량이 각각 4.6%,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5월 이후 사과 저장량도 전년(3만 2000 t)대비 7.1% 증가한 3만 5000여 t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시장에 공급되는 사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배 역시 출하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중 배(신고·상품) 도매가는 15㎏ 기준 7만원 내외로 전년 동월(11만 9800원) 대비 41.5% 하락할 것으로 KREI는 예측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데다, 저장배 품질 저하로 배 농가의 출하 의향이 증가하면서 5월 중 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냉해 및 병해충 피해가 컸던 반면, 올해는 작황이 양호한 것 역시 배 출하량 증가 및 도매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일과 함께 배추, 대파 등 지난해 가격이 끝없이 치솟아 농산물 가격 대란을 견인했던 채소류도 비교적 작황이 개선되면서 출하량 증가 및 도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상품) 도매가는 5월 기준 10㎏ 당 7000원 수준으로 전년 동월(1만 217원)과 평년(9166원) 대비 각각 31.5%, 23.6%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배추 도매가는 지난 3월까지 전년보다 강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저장배추의 품질 하락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달 들어 저장배추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39.9%나 늘었고, 곧 출하될 시설 봄배추와 노지 봄배추 출하량도 1년전보다 각각 12.3%, 1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당근(-45.1%) 등 배추 외 엽근채소들도 출하량 증가 등으로 도매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KREI는 전망했다.

양념채소에서는 지난해 가격이 폭등했던 대파(상품·10㎏) 도매가가 겨울대파 및 봄대파 출하량 증가로 1년전보다 41.8% 하락한 1100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겨울대파 주산지인 영광군의 대파 출하면적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이상기후로 대파 농사를 망쳤던 전남지역의 5월 출하량도 전년대비 25.6%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추억속 농기계가 된 경운기

70년대 농업 발전 큰 기여…환경 변화에 맞는 농기계 개발 중요

1980년대 후반 웬만한 농가엔 경운기 한 대씩은 있었다. 소나 사람을 대신해 ‘열일’했던 경운기는 만능에 가까웠다. 쟁기를 달아 논밭을 갈고, 로터리로 흙을 잘게 부수는가 하면 탈곡기를 연결해 벼를 털어 내기로 했다. 소보다 힘도 좋고 일도 잘했다. 농부에게는 농기계이자 자가용이었다.

경운기는 괭이와 쟁기를 대신해 논과 밭을 가는 보행 트랙터로, 192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서 클리포드 하워드가 발명했다. 구조만 보면 ‘견인력(Traction)을 일으키는 기계’인 트랙터(Tractor)의 일종으로 앞에 달린 엔진과 바퀴 두 개가 달린 부분만 ‘경운기’이고, 짐칸은 트레일러라고 불러야 맞다. 농촌에서는 이 트레일러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본체에 트레일러까지 합친 것을 경운기로 부르지만 말이다.

우리 농촌이 구루마(소가 끄는 수레)와 리어카 시대를 마감하고 경운기를 도입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농업기계화가 추진되면서다.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도입, 보급되기 시작해 농업기계화에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진행한 농기계보급사업은 경운기 확산의 계기가 됐고, 농업 발전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급 초기에는 밭을 가는 용도보다는 주로 운반용으로 사용했다. 시골길이 좁고 비포장이어서 적당한 운송수단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운반작업에 알맞게 엔진출력이 6마력에서 8~10마력으로 커진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런데 이런 혁명적인 농기계도 점차 쇠퇴기를 맞는다. 트랙터가 등장하면서다. 농사가 더욱 기계화하고 대형화·규모화한 데 따른 것이다. 경운기 이상으로 견인력이 세지면서 더욱 다양한 일이 가능했다.

농사에 있어 트랙터로 가능한 작업은 무궁무진하다. 작물을 심기 전 토양을 고르게 펼치는 작업인 로터리에 이용된다. 경작기를 연결하면 모판 수확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쟁기질에도 유용하다. 쟁기날을 장착하면 굳은 토양을 부드럽고 느슨하게 만드는 작업에 이용하며, 경작지의 풀을 해쳐 작물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경작지의 관개 작업에도 쓰이는데, 트랙터에 백호를 연결하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굴착기로 경작지의 흙을 팔 수 있어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곡류와 옥수수, 견과류 등의 수확기로 작물을 수확할 때 작업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준다.

이 외에도 견인 트레일러나 왜건을 장착하면 건초 더미를 옮기는 간단한 작업부터 수확한 작물의 지역 간 운반까지 담당하는 등 농장의 다양한 작업과 관리에 필수적인 기계다.

하지만 농업의 쇠퇴와 함께 농기계 사정도 변하고 있다. 농촌에 가보면 방치된 경운기가 부지기수고, 읍·면 지역의 농기계상에는 녹슨 채 주차돼 있는 트랙터를 쉽게 볼 수 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하릴없이 대단위로 집적화되면서 경운기의 쓸모가 줄어들고 트랙터마저 그 수가 줄어든 탓이다.

농기계의 소형화와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다. 퇴비살포기로 가축분퇴비, 유박, 마늘 전용 비료 등을 살포하고, 기계로 마늘쪽을 분리해서 마늘을 심고, 겨울이 되면 동해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덮어 주는 시대다. 특히 대규모 논농사보다 원예작물 등 밭농사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에 맞게 농기계가 다변화하고 있다.

경운기에서 트랙터, 트럭까지 농기계의 역사가 급속하게 변했다. 동시에 농사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농기계 구매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이래저래 생산비는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 농사짓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기계 개발과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big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한국형 모델 적용

농식품부와 착공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착공식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와 잔타콘 부알라판 라오스 농림부 차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홍익기술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성공을 다짐했다.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강력해지고 있는 태풍과 집중 호우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3~5등급의 강한 태풍이 발생한 횟수가 증가했고, 태풍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도 빈번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라오스는 지난해 9월 덮친 슈퍼태풍 ‘야기’로 15개 주에서 이재민 18만 5000명이 발생했으며, 축구장 3만 5000개 면적인 2만 5000ha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028년까지 55억원을 투입해 라오스 댐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 및 전담 조직, 전문 인력, 기자재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도 수립, 기반 시설 확보, 인적 역량 강화 분야로 나눠 추진하며, 제도 수립 지원을 위해 댐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지침’ 등을 참고해 라오스 현지 상황에 맞는 실무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표 회식 메뉴 ‘삼겹살’도 올랐다

수입돼지 가격 상승 영향…소고기는 평년보다 저렴

지난달 국내산 삼겹살 등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공용 수입돼지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산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소매가는 100ㅎ 당 평균 248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비쌌다. 이는 지난 2020~2024년까지의 국내산 삼겹살 소매가에서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가격의평균치를 뜻하는 평년 가격보다도 7.9% 높은 수준이다.

삼겹살 외에도 비교적 저렴한 앞다리살 소매가는 100ㅎ 당 1436원으로 전년 동월과 평년 대비 각각 5.9%, 19.4% 올랐다.

반면 국내산 소고기는 평년보다도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등심(1+) 등급은 100ㅎ 당 1만 747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 내렸고, 평년보다는 7.1% 저렴했다.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공급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

aT, 무궁화 보급·품종 개량 공로자 표창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 보급에 기여한 유공 단체장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표창은 무궁화 품종 개량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한 백일환 (사)무궁화총연합회 회장과 화훼산업 발전 및 무궁화 보급에 기여한 장순복 고양시 지도농협 조합장에게 각각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선 백 회장이 기증한 무궁화 50주를 양재 꽃시장에 식재하는 기증식도 진행됐다.

홍문표 aT 사장은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상징하는 꽃으로, 일상에서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aT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서 무궁화 식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